

민·관이 손잡고, 케이-푸드 플러스(K-Food⁺) 국제농업협력사업(ODA) 모델 만든다.

- 농식품부, K-Food⁺ 수출기업들과 국제농업협력사업(ODA) 연계 방안 논의

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송미령, 이하 농식품부)는 7월 16일(수) 서울 에이티(aT)센터에서 주요 수출기업, 유관기관 등과 함께 K-Food⁺ 수출 확대 및 해외 진출기업 지원을 위한 국제농업협력사업(ODA) 연계 방안을 논의하였다.

* 케이-푸드 플러스(K-Food⁺) : 농식품 + 전후방산업(스마트팜, 농기자재, 동물용의약품 등)

** 국제농업협력사업(ODA) :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농업 분야 개발 협력

이번 간담회는 농식품부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농업협력사업(ODA)과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실적 확대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민·관이 함께 모여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. 간담회에는 세계 각국에 농식품과 농기자재 등을 수출하는 13개 기업·단체*와 유관기관이 참석하였다.

* 대상, 오투기, CJ제일제당, 풀무원, 파리크라상, 샘표식품, 삼성웰스토리, (사)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,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,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, (사)한국작물보호협회, 한국동물약품협회, (사)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

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 및 관련 단체들은 국제농업협력사업(ODA)의 내용과 사업화 과정을 상세히 설명받고, 농식품부는 기업 및 단체의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.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의 수요를 기반으로 민·관 협력 모델을 발굴한 후, 협력국과의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. 이렇게 구체화된 사업은 내부 절차를 거쳐 '28년부터 사업 착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
* (모델 例) ①국제농업협력사업으로 고품질 원료 생산 → 국내 가공 → K-푸드 해외 수출
②국제농업협력사업으로 생산·가공·유통 인프라 조성 → 국내 종자, 비료, 농약, 농기계 등 지원 → 농자재 수출 및 K-농업 기술지원 서비스 해외 진출

간담회에 참석한 수출기업·단체들은 “국가별 비관세장벽 강화 추세 등 수출에 어려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제농업협력사업(ODA)을 통해 기업이 직접 투자하지 못하는 분야에 지원하는 것은 케이-푸드 플러스(K-Food+)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”라고 밝히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.

농식품부는 베트남에서 추진된 「무병 씨감자 생산 및 보급시스템 구축 사업('20~'25)」을 통해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의 원료공급망을 구축*한 경험이 있는 만큼 성공적인 민관협력 모델 추가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. 아울러 새로운 민관협력 모델을 통해 우리 농식품 및 전후방 산업 관련 기업의 해외 진출로 협력국의 농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

* 국제농업협력사업으로 고품질 감자(씨감자+일반) 생산 → 씨감자는 협력국이 활용, 씨감자 외 일반 감자는 베트남 현지 식품 가공공장을 운영 중인 우리 기업이 매입 → 상품 생산

농식품부 정혜련 국제협력관은 “케이-푸드 플러스(K-Food+) 수출은 국가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브랜드 제고, 농업소득 증대, 농업과 식품산업 연계 등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”인 만큼, “국제농업협력사업을 통해 수출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”고 밝히며 “사업의 성패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인 만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사업모델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국제협력관실 글로벌농업개발추진팀	책임자	과 장	김신재 (044-201-2011)
		담당자	사무관	서은희 (044-201-2012)